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나라    제목:대한민국이 넘어야 할 산    성경:요엘  
2장15-19절

15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6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17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옥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18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19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욥2:15-19)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이다. 어떤 목사는 구약성경의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후손 욱단이 한반도에 와서 나라를 세웠으며, 그 시조가 단군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또 성경에는 단 지파중 일부가 북쪽으로 이동해서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음.)

‘아리랑’ 도 ‘알’(하나님을 뜻함) ‘이랑’ 하나님과 함께 라는 뜻으로 해석. 팔레스틴에서 한반도까지 그 먼 길을 수많은 산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 오면서 부르던 노래가 오늘날까지 유래 되었다는 설.

결코 확인할 수 없는 주장들이지만,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무시할수만도 없는 일.

하지만 밝혀진 역사적 증거들만으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과거가 아닌 현재 수많은 지도자들이(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주목하

고 있다.

현재 선진국을 제외한 G20국가들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금융위기의 와중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 (IMF 백신, 금모으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가장 모범적인 나라.

-세계는 이미 미국도 싫고 중국도 싫지만, 한국이라면 경계하지 않는다.

-이미 일본은 경제적으로 제자리걸음을 오래도록 계속하고 있다.

-IMF 구제금융을 최단 시간안에 벗어난 나라.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북한과 접해 있으면서 유일하게 북한을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

-전 세계의 모든 도시에 침투해 있으면서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쳐 있는 나라.

-유일하게 중국이나 동남아, 인도,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갈등이 없는 나라.(유럽과 미국은 이슬람권과 갈등이 심하고, 중국은 공산국가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나라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내부적인 갈등 요인이 있으니, 이런 숙제를 풀어 버리고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 1. 우상숭배

-구약성경에서 가장 철저하게 배격하고 경계한 것.

-우상숭배는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항상 멸망으로 치닫는다.

-세속주의를 쫓아가다가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우상숭배는 그 결국이 멸망이다. 우상숭배의 짝궁이 성적 타락이다. (현재 불교 우상숭배가 가장 극심한 지역이 태국이며,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나라도 태국이다. 일본은 귀신숭배와 성적타락으로 거의 망해갔는데, 명치유신으로 당시 가장 기독교문화가 꽃피웠던 독일의 문명을 직수입해서 살아남은 나라가 되었다. 지금은 기독교문화가 거

의 사라져서 위기일로에 놓여있다.)

-현재 북한은 김일성 우상숭배로 거의 망한 나라가 이미 되었다.

-문제는 남한인데, 아직 우상숭배가 남아 있어서 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가 충분히 더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아니하면 주도적인 국가가 되기는 힘들다.

-이미 우리는 조선시대까지 우상과 조상과 귀신을 섬기다 그 댓가로 일제강점기를 지내야 했다.

-우리 예수 믿으며 우상을 배격하는 성도들이 이 나라의 소망이 된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제2의 이스라엘로 성장하자!

-그러나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면 곤란하다. 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소망이 되어야 한다.

## 2. 분열

-만약 우리나라가 분열하지 않는다면 원자폭탄과 같은 위력을 나타낼 것이다.

-한국은 분열왕국. 남북으로 동서로 나뉘어 다툰다. 다투어도 일은 같이 해야 한다. 다투더라도 건강하게 다투자. 관계를 끊으면 지는 것이다.(각방 쓰면 지는 것이다.)

-우리가 분열 중에도 이런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원래 우리는 잘 뭉치는 나라. 싸우지 아니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는 후덕한 나라.

-그런데 분열의 영이 이 나라를 유혹하고 유사 이래 계속해서 다투고 있다. 우리는 전쟁할 때만 뭉친다.

-이것은 철저한 마귀의 공격. 우리는 전쟁하듯이 분열과 싸워야 한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뭉쳐야 한다.

-여야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서로 돕는다면 우리

나라는 당장 선진국 될 수 있다.

### 3. 망령된 행실 (10계명은 잘 지키자)

-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해야 한다.
- 어른들이 잘못했다고 공경마저 포기하지 말자.
- 진실되고, 공평하고, 바람직스럽게, 아름답게, 편리하게, 유익하게, 재미있게 하되 공경도 하자.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
- 도둑질 하지 말자. 돈이 많은 사람은 경제적 약자를 생각하자.
- 간음하지 말자. 바람피우지 말자. 음란하지 말자.
- 거짓말 하지 말자. 신용을 바로 세우자. 여기에서 밀리면 진다.

### 4. 희생정신

- 그동안 저 철저히 우상숭배 벗어나지 못해서, 화합하지 못해서, 진실하거나 공평하지 않아서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 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공직자들만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자. 그들도 우리의 형제라.
- 내가 보기에 모두 다 회개해야 한다.
- 모두 다 희생해야 한다.
-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한다. 나만 희생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자.
-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고, 내가 먼저 할 뿐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정체성      제목: 정체를 밝혀라      말씀: 창세기  
44장16-34절

16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17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되지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18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19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20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21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22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23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24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25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26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27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28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29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 가려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30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1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아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32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33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4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창 44:16-34)

## 1. 자신의 정체성의 중요성

- 정체성이란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가고 있다.

-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다. 나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나의 시대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 유다는 자신이 야곱의 아들이며, 장자도 아니지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군가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희생하지 아니하면 앎된다는 것을 알았다.

## 2. 자기의 소명을 살피라

- 나는 왜 태어 났는가?
- 나는 어디에 태어 났는가?
- 나의 개인적 소명이 무엇인가?
- 나의 가족들에게 소명은 무엇인가?
- 나의 일터의 소명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의 소명은 무엇인가?

-유다는 사랑하는 두 자녀를 먼저 보내고, 사람의 죄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며, 현재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숙제를 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사람.

-그는 요셉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믿었다.

## 3. 자기의 소속을 살피라

- 나는 현재 어디에 속해 있는가? 가족에서의 위치
- 나는 현재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가?
- 나는 현재 어느 셀에 속해 있는가?
- 나는 현재 누구를 영적 리더로 삼고 있으며, 내가 돌보는 영적 구성원들은 누구인가?
- 유다는 12명의 형제들의 리더가 되었다. 그는 12명과 부모님들과 자녀 세대에 대한 섬김을 실천했다.

## 4. 자기의 사명을 살피라

- 나는 어디에서 언제까지 무슨일을 명 받았는가?

-내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유다는 스스로가 옥살이를 할 것을 자청하였다.